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받아보고.....

보낸날짜 2003년 11월 08일 토요일, 밤 12시 27분 50초 +0900 (KST)

보낸이 "강은산" <kang0157@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소속기관 조선이공대

비대위에서 보내주신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백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백서에 있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러한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팠기에 부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글을 읽어 보고 문제시 돼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누구랑 토론을 하지도 않았으며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말할까 합니다. 토론되지 않은 문제점을 올리는게 문제 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말을 할까 합니다.

백서를 읽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든건 운동 대오속의 한 동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아른거리더군여 물론 7년이라는 시간뒤에 다시 돌아 올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동지는 돌아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돌아와서도 안됩니다. 돌아 오는것 자체가 그 동지는 고통의 연속일 테니까여...

운동대오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생각합니다.(우리는 정치인이 문제를 일으키고도 다시 정치를 하는걸 보면서 xx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설을 퍼붓지요)

그 동지는 성희롱 사건의 문제만 반성하고 자신의 더욱더 발전시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구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수도 있겠죠. 백서 내용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빨리 풀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동지는 개인이 아닌 운동대오 전체가 도덕적인 문제를 짊어져야 할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운동대오 전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두 합니다. 운동대오 전체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문제를 키워버린 비대위나 가해자가 일괄적인 책임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내용을 보면 동지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려고 했다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동지애적인 관점이었는지를 비대위 스스로가 다시 되물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동지애적인 관점인지를 단순히 사무적인 관계가 동지애적인 관점 이었는지 아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동지애적인 관점 이었는지 아니면 한 동지의 도덕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운동대오 전체의 여성적 관점이 잘못 된 점을 짚어 내기위한 동지애적인 관점이었는지 저는 무엇이 동지애적인 관점으로 가해자인 동지를 끌어 안으려고 하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해자 동지는 사회정치적인 생명력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생명력이 끝나버린 사람이 다시 어떻게 우리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운동대오에서 얼싸하구 받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비대위에서 운동대오 전체를 비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에서는 운동대오속에서 수 없이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많은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대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례를 알고 있는지 아님 증거를 명백히 가지고 있는지 아님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남한사회 변혁운동대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대오는 민중들에게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비인륜적인 운동대오라면 그 어떤 민중이 우리가 안내하고 자 하는 길을 따라 올려 할가여..

비대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던지지 이야기하려 하지말고 있는게 있으면 감추지 말고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강위원에게 했던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집단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함부로 동지애적이 관점으로 대했다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위를 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강위원이 느끼기에게는 무서운 벽이 느껴졌을 것이며,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위원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여 자살을 시도 하였던 것은 명백히 비대위에서도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니 강위원이가 자살을 시도 하니 동정심으로 백서로서 이번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며 의문이 생깁니다.

비대위를 꾸렸으면 정확히 사건을 공개하여야 했으며, 비대위가 유령단체가 아닌 이상은 명확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공개적인 활동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운동대오는 자신들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비대위가 운동대오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가져갔으면 끝까지 비공개적으로 마무리를 졌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강위원이라는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강위원이라는 사람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며 남자로서 동정심이라든지 신의가 있어서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경멸스러우니까여...

한 동지를 위해서 운동대오 전체를 문제 삼았다면 그 피해자나 비대위도 결코 운동대오속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수도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이런 글 읽으시라 고생하셨습니다 .

하지만 비대위 자체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면 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메일 보다는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대위는 백서로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웠다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이 문제가 붉어 질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서를 접하기 전까지는 많은 운동대오가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운동대오가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운동대오전체를 문제 삼아 이야기 하였으므로 운동대오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활동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명확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고 강위원 문제가 운동대오속에서 일어나는 한 편의 예일 뿐이라 한점과 운동대오 전체를 비인륜적인 성폭력대오로 몰아버린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비대위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는 문제를 명확히 짚어내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 든게 명확하게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